

유창성 장애 및 음성 장애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효정 · 조성미 · 박희정 · 이무경 · 권도하 · 정옥란 · 석동일

연구 배경 및 목적 :

많은 구어 장애 환자들은 구어 장애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불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 등의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구어의 병리는 반복되는 의사소통의 실패를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자로서의 자신에 대하여, 또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키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어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태도가 정상인들과 차이가 있는지와 함께 구어장애의 하위 유형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유창성 장애 집단에 25명, 음성장애 집단에 25명, 정상집단의 5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의사소통 태도라는 심리적인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Andrews(1974)가 개발한 의사소통 태도 측정 도구-수정판(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 S-24)을 변안하여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

전체 의사소통 태도 점수를 집단 간 비교하였을 때, 두 병리 집단 즉 유창성 장애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두 병리집단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검사도구의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세 집단을 모두 변별하는 문항, 즉 정상과 병리집단을 구별하고, 또 병리집단 안에서 유창성 장애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을 변별하는 문항과, 정상집단과 병리집단만을 변별하는 문항, 유창성 장애 집단만을 변별하는 문항, 음성 장애 집단만을 변별하는 문항, 세 집단을 모두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고찰 및 결론 :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언어장애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평가도구를 구성할 때, 언어장애 보편적 문항과 하위 언어장애 특성적 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구어 장애 및 언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의사소통 태도의 평가를 통해,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치료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Manning WH.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San Diego, CA: Singular Thomson Learning;2001.
 Kaplan H, Bally S, Brandt F, Busacco D, Pary J. *Communication scale for older adul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1997;8 (3).
 Lalih AK, Rochet AP. *The Effect of Information on Listeners' Attitudes Toward Speakers With Voice or Resonance Disord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2000;43 (3).
 Glenn EE, Smith TT. *Building self-estee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998;2 (1).